

특집

# 2010년 만개한 책꽃, 제6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을 이야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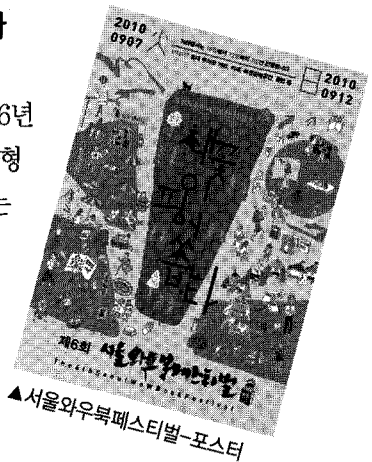


김 정 연  
(사)서울와우북페스티벌조직위원회 사무국장  
bdan325@naver.com

## 서울, 홍대 거리에서 예술적인 감수성으로 책을 노래하다

서울, 홍익대 앞에서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열린 지가 어느덧 6년 차에 접어든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다원적이고 실험적인 문화형성의 장 위에서 축제의 다양한 모습을 참가자들이 만들고 즐기는 장이라고 보면 될까? 시민들은 신나게 책과 함께 놀 수 있는 마음만 준비하면 된다. 축제의 기본은 즐거움과 일탈이기 때문이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홍대



▲서울와우북페스티벌-포스터

주변 3,000여 개의 출판사와 음악·미술·연극·무용·퍼포먼스 등의 예술과 특색있는 지역문화가 결합된 '책문화예술축제'이다. '와우'라는 명칭은 소가 느긋하게 누워있는 인근 산의 형상을 의미하는데 소처럼 느긋이 누워 책을 즐기면 좋겠다는 상상력의 시작과 더불어 'wow'라는 감탄사가 주는 뜻이 더해 어감이 다양하게 의미되기도 한다. 이렇듯 마포구에 밀집해있는 출판사 그리고 흥대라는 지역적 특유의 문화적 요건들, 책과 문화예술의 접점을 통해 책문화예술축제인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생겨나게 되었다.

2005년에 제1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거리로 나온 책, 함께 읽는 책, 우리가 쓰는 책'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어 2009년 제5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책, 樂(즐길약)몽을 꾸다' 까지 그리고 올해 제6회를 준비 중이다. 출판과 산업, 책과 문화예술, 시민과 저자(예술가), 기관과 단체 등이 함께 모여 만들고 일상 속에서의 책문화부흥과 독서운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 제6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9월 가을에 책꽃 피우다

2010년에는 9월 7일(화)부터 12일(일), 6일 동안(거리 행사는 9월 10일~12일-3일 동안 진행) 흥대 거리 곳곳, 카페, 복합문화공간, 갤러리, 클럽 등에서 70여개의 프로그램이 열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책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콘텐츠로 만들어진 70여 개의 프로그램 속에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만날 수 있으며 100여 개의 출판사, 공공기관, 저자, 예술인, 시민단체, 예술단체 그리고 축제의 꽃인 100여 명의 자원활동가들(리더스)이 함께 꾸린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축제의 거리

올해 축제에서는 '책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다시금 모든 문화예술과 상상력, 감수성을 꽃피우고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꽃,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근원적 매체로서의 책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 책꽃 속에서-100여개 출판사, 70여개의 풍성한 프로그램, 그 안에서 무한 즐기기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매해 책 및 책문화 이슈를 함께 이야기하는 '특별행사' 세션으로, 올해는 탄생 100주년을 맞는 작가 '이상'을 조명하는 '이상한 책읽기'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최근 이상 평론집(한길사)을 낸 조영남의 '시인 이상을 위한 북콘서트'와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회장 안상수)의 기획전시 '이상한 책展'을 비롯, 각종 전시, 낭독 프로그램 등이 '이상'을 읽고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을 제시한다. 특히나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의 독특한 게스트로서 매해 낭독을 통해 '듣는 책'의 기쁨을 선사하는 "북캐스터가 읽어주는 책"이라는 세션은 기상캐스터가 참여해 귀에 익숙한 음성으로 책을 들려준다. 북캐스터가 낭독하는 이상 작가의 수필 '산촌여정'과 그의 유일한 동화

‘항소와 도깨비’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기획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의 ‘이상 서평전’을 들 수 있다. 홍대 인근 미술학원과 함께 진행되는 이 전시는 이상 작가의 작품을 읽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서평전이다. 청소년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디지털로 피어나는 책, 현대적 흐름과 트렌드를 읽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저자와의 대화

아울러, 제6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책과 디지털 책문화를 올해 축제의 또다른 중심행사로 구성하였다. ‘디지털 북 쇼(Digital Book Show)’로 통칭될 해당 세션에서는 관련 업체와 콘텐츠가 기존 종이책과 조화하여 새로운 출판문화의 꽃을 피우는 가능성의 자리를 마련한다. 특히나 다양한 독자와 관계자들이 만나 책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가능성을 모색하는 ‘와우북콜로키움’에서는 전자책 이슈를 포함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미래의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계획이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의 큰 축을 구성하는 세션들이 변함없이 6일간의 축제를 가득 채우며 독자 및 일반 시민을 만나게 될 예정이다. ‘와우북판타스틱서재’에서는 여행, 역사, 취미, 문학 분야 저자뿐만 아니라 책을 만드는 사람들인 편집자 등 유쾌한 만남이 홍대 지역 곳곳의 카페와 대안공간에서 벌어진다. 미술평론가 박영택이 들려주는 ‘얼굴로 보는 미술 이야기(마음산책)’와 대안교육계의 명사들이 함께 하는 좌담, 그리고 인문학부터 미드 이야기까지 여러 장르의 저자와 만날 수 있다. 청춘을 이야기하는 전 MBC PD 주철환과, 일본 여행 이야기를 소개한 홍대 인디 뮤지션 오지은 뿐만 아니라 아나운서 장진주, 문학평론가 조영일, 개그맨이자 화가인 임혁필, 인문학 블로거 이현우와 만화가 최규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자들이 함께 하여 판타스틱한 서재로 독자를 초대할 예정이다.

이 세션 안에 ‘와우북콜로키움’과 더불어 책문화를 두루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 ‘책문화포럼’이 있다. ‘책문화포럼’은 ‘북커뮤니티; 우리는 왜 여기서 책을 통하여 만나는가’라는 타이틀로 비중 있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지금의 흥미로운 공동체 책문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를테면 서점이나 헌책방, 도서관, 북카페 등 지역 및 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 독서 커뮤니티를 조성한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그 알찬 속 얘기를 공유하게 된다. 지역 속 도서관, 헌책방, 책문화지원기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생각을 조명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다. 2006년 ‘공공디자인으로 본 도서관: 실내/외 건축적 관점’을 시작으로, 2008년 책문화포럼은 ‘한국적 책마을을 꿈꾸다’라는 이름으로 사라져 가는 책문화 공간을 하나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저자와의 만남 강연

씩 조명해보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어 공간 운영의 어려움, 고민 등을 함께 나누면서 책마을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09년에는 '지역 속 작은 도서관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지역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는 작은 도서관들이 갖는 의미와 기능들을 살펴보고 책을 통한 공동체 만들

기의 가능성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간까지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2010년, 올해의 <책문화포럼\_북커뮤니티; 우리는 왜 여기서 책을 통하여 만나는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어볼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작은도서관을 비롯하여, 고서점, 현책방, 북까페나 서점 등 지역사회에서 나름의 책문화 공간을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가진 독자들과 소통하며, 나름의 성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책문화주체들을 만나보는 기회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오래되고 한없이 단순한 외형의 '책'이 지역사회와 독자들과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만나면서, 다양한 문화적 효과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것은 책이 모든 콘텐츠의 근본이라는 또 다른 측면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책문화가 작동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작은 모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의 '와우북콜로키움'과 '책문화포럼'은 현재의 책과 그 책문화를 살펴보고 미래의 책과 그것이 가져올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흐름에 관심있는 관련 종사자나 일반 독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꿈꾸는 시간을 갖는다.

### 문화예술로 무한 변신한 책의 상상 그 이상의 세계 와우북상상만찬

예술로 무한 변신한 책의 실험적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와우북상상만찬' 세션에서는 영화화된 소설 '남쪽으로 튀어' 상영회를 비롯, 최규석 만화 전시나 책 관련 원화, 사진 전시들이 진행된다. 9월 10일에는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의 야외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Digital book'을 주제로 종이책의 화려한 변신을 눈과 귀로 즐길 수 있다. 잔잔하면서도 금요일 밤을 흥겹게해 줄 개막공연으로 각계 인사의 축하인사와 디지털로 만들어진 다문화책이 보여지는 북쇼, 낭독과 기부문화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9월 11일 토요일에는 와우북 휴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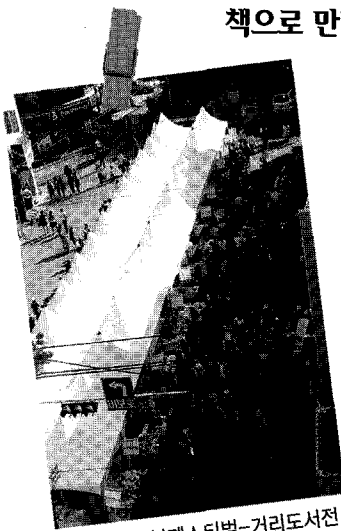
▲서울와우북페스티벌-김창환 북콘서트

콘서트((재)마포문화재단)가 진행되는데 책을 사랑하는 뮤지션들의 공연과 그들이 추천하는 책을 기부하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토요일 밤의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책 읽기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 마포 FM과 함께하는 '낭독릴레이'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책 읽기 프로그램이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 행사는 축제에 오지 못하는 장애인, 상가 운영자들, 버스 운전자, 공간 운영자들을 위해 소출력 라디오로 그 열기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시'의 색다른 변신도 감상할 수 있다. '일요시극장'은 거리 곳곳과 무대 위에서 시를 낭독하는 예술가들의 색다른 낭독의 모습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요시극장에서는 시가 음악이 되고, 또 다른 소리가 되며 즉흥적인 퍼포먼스가 되어 몸의 언어, 소리의 언어로 표현된다. 축제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내가 살던 용산' 북콘서트는 동명의 만화를 바탕으로, 그 책과 현실 속의 이야기들을 콘서트로 꾸몄다. 그 외에도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 힐스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짧은 기획으로 준비하는 '작가의 길에서 동행을 만나다' 전시와 '수군수군 북적이다(작가 북적이다)'와 '책이 있는 작업실(작가 퍼퓸)' 북아트 전시, '로베르토 인노첸티 그 집 이야기' 아트 프린팅 전시(사계절출판사) 등이 홍대 앞의 독특한 갤러리와 카페 곳곳에 예술이 된 책의 변신을 재기발랄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와우북상상만찬'은 책이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원천적 소스가 상상력을 발휘해 변화를 일으키고 원작이 예술에 미치는 영향 혹은 그 시각의 다름을 몸소 느끼게 되는 세션이다.

### 책으로 만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소통의 장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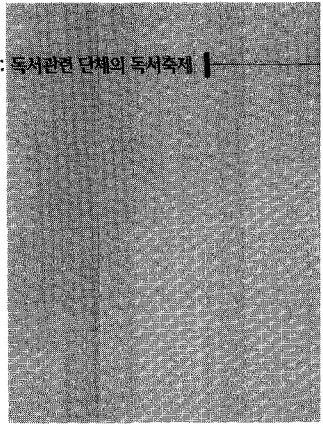


▲서울와우북페스티벌-거리도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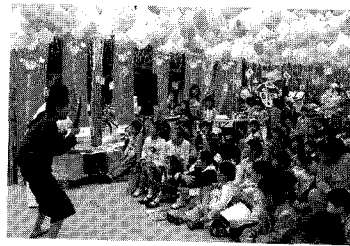
홍대 앞 주차장, 견고 싶은 거리의 중심을 이루며 책으로 가득 뒤덮는 장관을 연출하는 '거리로 나온 책' 세션이 축제의 야외행사 3일을 장식한다. 이 중 100여개의 출판사가 직접 나와 소장하고픈 의미 있는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거리도서전'은 그가 운데서도 단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거리도서전은 소장하고픈 도서를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가치도 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출판사의 관계자를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다. 편집자가 직접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며 그 책을 만들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려준다. 그래서 시민들은 책을 사랑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를 만나기 위해 큰 배낭과 운동화를 신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거리의 끝에서 끝(주차장거리를 뒤덮는 버스)으로 책을 찾아 여행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행사이다.

책과 함께 하는 홍대의 거리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열려 있다. 책으로 놀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어린이 책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책을 만지고, 보고, 듣고, 체험하

는 등 오감으로 책을 읽는 즐거운 공간이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책을 무겁게 접근하지 않고 '책'과 '놀이'를 통해 책은 즐거운 것임을 놀이터로 만들어진 자유로운 야외 서재를 통해 몸소 익히게 된다. 어린이 책놀이터는 야외서재로 구성되어 햇살아래에서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놀고 또 떠들고 자유롭게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소재로, 올해 주제인 '꽃'과 짝을 이루어 '똥'이라는 재미있는 소재를 선택하기도 했다. 건강한 먹거리 생활로 몸이 튼튼해지고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래서 배출되는 똥은 자연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컨셉으로 설정했다. 어머니가 읽어주는 동화를 기반으로 외국인 마망이 읽어주는 다문화 책읽기와 로드스토리의 마임 공연, 마네트의 인형극, 룰루랄라 동요 부르기 등 각종 체험이 이루어진다.



▲어린이 책 놀이터-구연동화



▲어린이 책 놀이터-공연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미 매주 토요일 흥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상설화 된 '와우책시장'이 축제 기간 중에는 축제 안으로 들어와 손때 묻은 책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인정 넘치는 책벼룩시장이 구성된다. 트렁크 속 작은 책방은 서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웃사촌이 되는 시간이다. 내 추억이 담긴 책을 사가는 사람은 곧 친구가 되는 소통의 장이자 지역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추억과 향수를 공유하면서 책이 친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책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하는 아날로그 책장터이다.

책을 통해 새로운 기부 문화 캠페인을 형성한 '사랑의 책꽃이' 프로그램도 있다. 책을 통한 나눔의 아름다운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기부문화프로그램이다. 모아진 기금으로는 소외계층, 아동센터, 공부방 등에 책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전달할 계획이다.

책을 매개로 장르와 장르, 출판사와 독자, 시민과 아티스트, 단체가 서로 어울리며 함께 만드는 축제인 제6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올해 9월을 책꽃이 피는 달, 웃음꽃이 만발한 가을로 기억하게

만들 의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손안에서 책을 펴면, 그 속에 깊이있게 의미되는 꽃들이 필 것이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앞으로도 문화와 산업, 산업과 경제, 그리고 예술에 이르기까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식출판문화의 중심을 구축하고 삶의 지식과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는 자원으로서의 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인문학 및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폭넓은 독서문화 조성을 통해 일상속에서의 행복한 독서운동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이며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책문화예술축제로서 꽃피우기 위해 산업인프라 확대와 다양한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폭넓게 확대되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 제6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 “책꽃이 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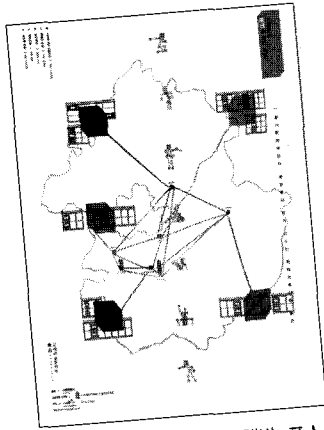
- 기간 : 2010. 9. 7.(화) ~ 9. 12.(일) 6일간(야외행사는 3일간 9. 10. ~ 9. 12.)
- 장소 :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주차장, 걷고 싶은 거리, 갤러리, 카페, 대안 공간 등
- 규모 : 출판사 100여개 사 참여, 책 관련 기관 단체, 커뮤니티 등
- 주제 : 책꽃이 피었습니다
- 주최 : 사단법인 서울와우북페스티벌조직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출판문화협회, KT&G, 두성종이, (재)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메트로
- 미디어파트너 : DAUM
- 협력 : (재)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클럽문화협회, KoPAS한국실험예술정신
- 협찬 : 오리온제과
- 홈페이지 : <http://www.wowbookfest.org>
- 문의 : 전화 02-323-1585~6, 팩스 02-323-4576

## 2여년의 책문화예술축제를 기반으로 일상적인 책문화를 꿈꾸다

사단법인 서울와우북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제3회 축제가 진행되었던 2007년도 해였다. 2005년부터 국내 유일의 책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토대로 지식정보시대의 책 읽는 문화를 선도하고 미래 출판산업 및 예술문화산업의 토대가 마련되던 지점이였다. 문화의 메카 홍대 일대에서 지혜와 상상력의 원천인 책을 소재로 문화와 산업, 산업과 예술을 매개해온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현재 다섯 차례의 축제 개최와 도서관 컨설팅 사업(2009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도서관 사업의 컨설팅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포스터



▲배영환의 내일을 여는 책방-포스터

진행(재)서울문화재단), 책과 관련된 많은 문화사업(2009년 '배영환의 내일을 여는 책방') 아트 프로그램 코디진을 통해 시민과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책문화 및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하여 지식정보시대의 책 읽는 문화를 선도하고 미래 출판산업 및 예술문화산업의 토대를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2월에는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지속적인 단체의 활동들, 즉 축제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일상 속에서의 즐거운 책 읽기 및 '책읽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시민사회와 출판사, 단체, 예술가들의 자발적이며 구체적인 운동 및 문화로 변모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통한 부가 가치 창출, 다양한 지식과 콘텐츠를 창출하는 출판문화의 중요성, 일상의 다양한 책문화의 독서운동, 캠페인 형성, 생활속의 즐겁고 다양한 책문화 조성, 다양한 장르의 문화 생산자 네트워크 구축 등을 기반으로 축제 및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또한 문화와 산업, 산업과 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책문화 진흥과 출판문화 발전에서 나아가 다양한 계층이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생산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 도서관 한 책읽기-워크숍(도서관 사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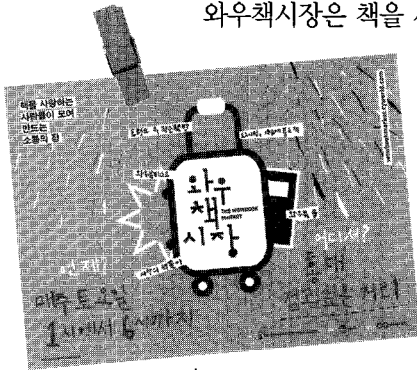
▲배영환의 내일을 여는 책방-점자책만들기



## 생활속의 독서활동을 지향하는 또다른 모습들

### 첫 번째, “와우책시장”

(2010년 6월~11월, 매주 토요일 13시~18시까지-장소:홍대 야외 무대 공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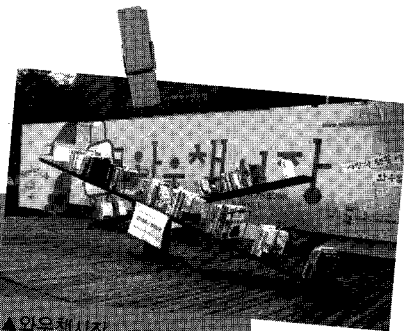
▲와우책시장-포스터

와우책시장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소통과 나눔 공간이다. 2005년부터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시민들이 야외로 나와 직접 책 관련 소품을 판매하며 책과 관련된 추억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다. 혼자서 하는 개인적 독서와 책 문화에서 벗어나 아날로그적 감수성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책 시장이며, 책을 통해 친밀한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기도 하다.

‘책’을 매개로 홍대 앞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자리를 도모하고 일상의 책문화를 확산하고 책 문화 소스 아티스트 개발 및 출판 관련 산업 유통 마켓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민들과 참여자가 이웃사촌이 되는 친밀하고도 내실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목표로 한다. 2010년 6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매주 토요일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무대 공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들의 ‘트렁크 속 작은 책방’을 기초로 출판사마다 재고도서 중 “숨겨진 명작”으로 엄선한 5종의 책들이 선보여지는 ‘토요 서점’이 함께 구성된다.

또한 ‘와우책시장’에는 ‘사랑의 책꽃이’라는 책 기부문화캠페인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진행되어온 책을 통한 나눔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이 사업은 출판사와 시민들의 책기부를 통해 모아진 기금으로 지역의 공부방,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에 책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열린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듯 트렁크에 책 그리고 책과 함께 들으면 좋을 음악을 가득 담아 홍대 앞으로 gogo!



▲와우책시장



▲와우책시장-시민참가자



▲와우책시장-북티스트 'dub' 공연



▲와우책시장-토요서점, 기슭에 품은책 전경



▲와우책시장-기부문화캠페인 '사랑의 책꽂이'



▲와우책시장 -트렁크 속 작은 책방



▲와우책시장-트렁크속 작은 책방 시민참여자

두 번째,

“와우어린이책놀이터” (2010년 8월7일~8월29일, 상시진행\_장소:가든파ιβLIFE관 지하1층)

와우어린이책놀이터 “똥책이랑 놀고, 구름빵이 웃고”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세상을 구현해 책놀이터로 구성하였다. 종이 박스로 만든 각각의 집에서 똥글면서 책도 읽고 또 소원을 적어 집에 추억을 만들고 비밀엽서를 통해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 우편함에 넣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기획이 되어 진행하고 있다. 구름빵 원화 전시 그리고 한국어,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을 가족들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연출하여 자유로운 열린 공간으로서의 책놀이터 세상이 펼쳐진다. 한편 주말에는 <동화 속



▲와우어린이책놀이터-포스터

으로 풍덩~)이라는 타이틀로 색동어머니회 엄마들이 직접 진행하는 연극, 동화 체험프로그램이 열려 아이들이 재미있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체험 전시로 기획되었다.

세 번째,

**“인라이브리리(In Library) 사업 : 도서관 안에서의 새로운 가능성 발견**

본 단체는 이전의 사업을 바탕으로 일상적 지역 문화 공간 도서관 문화 만들기를 고민하는 지역 도서관의 사서와 주민들이 함께 지역의 공공 도서관을 친밀한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 협력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2009년 (재)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한 <2009 책 읽는 서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에서 서울시내 72개소 공립도서관 문화예술사업, 홍보, 운영, 문화예술교육, 도서관 운영, 독서교육 컨설팅과 경기도 내 5개의 지역 속에서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진행되는 “배영환의 내일을 여는 책방\_주최:(재)경기문화재단” 프로그램에서 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코디네이터 역할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도서관 사업들을 통해 도서관이라는 미래 지향적이고 복합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책 문화 사업들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며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지역의 목소리가 담긴 그 도서관만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시민간의 참여를 통해 공간의 활성화를 꾀하고 도서관간의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다양한 웹진과 더불어 온라인 일러스트 마켓, 기획 온라인 판매 창고인 숨겨진 명작 ‘책’ 기획전 등 온라인에서의 활약을 준비 중이다. 또한 향후 사단법인 서울와우북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책 읽는 문화와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원, 독서문화·출판문화 관련 자료수집·분석·연구 및 간행물(웹진포함) 발간, 독자 양성과 신진 출판관련 창작자들을 위한 교육 연수사업 및 세미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소수자 등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중이며 실천하려고 한다. 책을 통해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 설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넘치는 힘을 믿고 꿈꿔본다. 